

치아는 어떻게 잇몸을 뚫고 나오는 걸까? 🐼

이번에는 어린아이에게서 치아가 맹출하고 교환하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치아가 중력을 뚫고 입안으로 나오며, 또한 빠진 자리에서 다시 이가 나올까요?

치관이 완성이 되면 치아는 밖으로 나오는, 맹출 과정을 겪습니다.

치아가 나올 때 뿌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좀더 시간이 지나면 뿌리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 보시는 앞니는 뿌리가 1 개이지만, 어금니는 여러 개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가 완성이 됨으로써 한 개의 치아는 조직 발생과 형태 발생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아는 무슨 힘으로 위로 잇몸에서 피도 안내고 입안으로 나올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뿌리가 자라면서 힘을 얻는다는 것은 뿌리가 아래로 자라면서 힘을 아래로 뺏는다는 것인데 이때의 추진력으로 치아가 맹출 한다는 것입니다. 혈관의 압력에 의한 것은 치아 뿌리 근처에 조직액의 압력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쉽게 말하면 풍선이 팽창하면 풍선 밖의 것들이 밀려난다는 것이지요.

또한 뼈가 자라면서 일어난다는 것은 뼈는 침착과 흡수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데 어린이의 경우 침착이 흡수보다 커서 성장이 일어나듯이 이런 원리로 맹출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인대의 견인에 의한 것이라든지 말이지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것이 정확하다는 확설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뿌리가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는 추진력과 잇몸을 뚫을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뿌리에 무슨 추진 엔진이 달렸을까요?

이것을 보시는 청소년 여러분이 한번 연구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프로그램 하셨는지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또한 치아는 영구치는 유치의 뿌리를 따라 뿌리를 녹이면서 그 자리로 맹출하게 됩니다. 치아의 구조물은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치아의 뿌리를 따라 형성되어 있는 인대는 뼈와 치아를 연결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교환 시기가 되면 이런 구조물들이 아래에서 나오는 계승치가 아무런 조직에 병적인 변화 없이 조직을 녹이면서 앞으로 빠질 치아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유치와 계승치는 치아의 크기가 다릅니다. 치아가 빠져나간 자리로 뼈의 형성과 흡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유치를 담았던 악골이 커다란 영구치를 수용할 수 있는 악골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치아에 눈이 달렸을까요? 아니면 레이다가 설치되었을까요?

이런 상황들은 아직까지 그 기전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어떤 유전 정보에 의한 것일 거라는 정도지요.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설계입니까?